



# “변화 이끌 창조적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

장두석 선생 49재서 법륜스님 ‘즉문즉설’

## 민주화 기여한 고인의 공로 다음 세대가 계승을 세월호 규명·통일 지향적 정부 꾸리기 당면과제

통일운동과 민족생활의학을 전파하기 위해 평생 헌신하다 지난 3월 향년 78세로 별세한 해관 장두석 선생. 지난 12일 화순군 이서면 인제리 용강길 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양현당 앞마당에서 해관 장두석 선생의 49재가 열렸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이예주 서울대 명예교수의 추모 공연과 함께 법륜스님(62)의 추모사 그리고 ‘즉문즉설’이 진행됐다.

법륜스님은 원래부터 나쁜거나 좋은 존재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나쁜 혹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명하기 직전 지인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슬퍼하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전한 고인이야말로 생을 달

관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계승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참석자들과 즉문즉설이 이어졌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는 한 참석자에게는 ‘피장파장’이라는 답을 건넸다.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마찬가지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진상규명을 정말로 원한다면 세월호를 숨기려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바꿔야 합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한탄하고, 정부를 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양을 원치 않는 정부에게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게 분명하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보수, 호남-영남으로 분열된 한반도에서 통일의 불꽃을 뜨기 위한 시민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분단된 땅덩어리 때문에 혈육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끝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통일의 가치를 새롭게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젊은이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한반도가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열강 틈바구니에서 시달려야 했던 한반도가 통일로 안정된다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스님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역시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통일이 경제, 군사, 외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인내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정부를 꾸리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세기 넘도록 켜켜이 쌓인 앙금을 털어낼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제침략과 한국전쟁, 세월호 참사까지, 비극적인 참사가 자꾸만 되풀이되는 게 우리 민족의 운명인지, 참담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밝은 내일’을 우리 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나 네팔 지진 희생자들을 향해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종교인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그들이 믿는 성인들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세월호에 타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실종되고 희생된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달래주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화순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광주 기독교연합, 광주 CBS에 감사패

광주 기독교 연합회(이하 광주 NCC)가 17일 오후 2시 광주 한빛교회에서 열리는 5·18 35주기 추모 예배 때 군사정권 시절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추모 예배를 지속해서 방송하며 광주 정신을 전파한 공로를 기려 광주 CBS에 감사패를 전달한다.

광주 CBS는 신군부 정권에 의해 지난 1980년 11월께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통폐합 조치로 인해 보도기능을 박탈당한 뒤 대통령 직선제 요구 등 민주화 투쟁에 따른 국민의 요구로 1987년 보도기능을 회복하고 5·18 기념식을 유일하게 전국에 생중계하며 5·18의 의미를 전국화하는데 힘썼다. 또, 광주 CBS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산화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5월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5·18 추모 예배를 지속해서 방송하며 광주정신의 전파에도 전력을 기울여왔다.

김갑수 광주 CBS 본부장은 “5·18 광주정신 구현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광주 NCC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데 대해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CBS는 5·18의 전국화·세계화는 물론 방송선교와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전력 新산업 한전이 선도해 나갈 것”

조환익 사장 호남미래포럼 강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함강수) 초청 강연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계기로 호남지역에서 마이크로그리드, ESS(전기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신산업을 한전이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세계 경제의 흐름은 농업, 산업, 정보통신에 이어 에너지 부문이 세계경제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말하고, “한전



은 117년 동안 국내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나주 빛가람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전은 지난 해 ‘Smart Energy Creator’라는 새로운 비전 수립 후 나주로 이전하면서 에너지밸리를 신 전력수도이자 세계 속의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글로벌 창조경제 구현 목표를 설정했으며 최근 에너지밸리로 이주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위암 투병 김재균 전 국회의원 별세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균 전 의원이 14일 오전 5시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195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 사래지오교(현 살레시오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3사관학교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1991년 초대 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해 1998년 제5대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민선 2~3기 광주 북구청장을 지냈고, 2008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같은 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시인



겸 화가로 활동하며 1998년 시대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의미대전에서 다수 입선·특선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는 위암 투병중에도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유교 시집 ‘무등을 그리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인 경경자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광주역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6일 오전이다. 장지는 담양군 월산면 천주교공원묘원이다. 문의 062-264-4444.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밝은광주안과, 모자원 건축 후원금 전달



밝은광주안과(김재봉 대표 원장)는 지난 13일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을 방문, 미혼 임마들과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우리집'(모자원) 건축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제공>

### 조규일 백민미술관 설립관장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수상

조규일 백민미술관 설립관장이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공헌한 박물관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2015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수상자는 원로 부문 2명, 중진 부문 1명, 젊은이 부문 1명과 특별공로 부문 2명 등 총 6명이며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관장은 본인의 작품을 물론 평생 수집한 소장품을 보성군에 기증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립미술관인 백민미술관이 들어서게 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산간벽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박물관인



상’은 박물관·미술관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공헌한 박물관·미술관인들에게 자부심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박물관 및 미술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은 ▲원로 부문에 조규일 백민미술관 설립관장과 이복형(재) 충남미문화원 병설 박물관 설립관장이 공동 수상하며 ▲중진 부문에는 진화수 국립진주박물관 관장 ▲젊은이 부문에는 신형석 울산 대곡박물관 관장이 각각 영예의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정치적 동지’ 손학규, 마지막 배웅

정계 은퇴 선언 후 강진의 토담집에서 집가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김재균 전 국회의원이 14일 새벽 숨지기 전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숙연케 했다.

김재균 전 의원 측근 등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부랴부랴 강진의 토담집을 출발해 13일 밤 11시30분께 광주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 전 의원을 병문안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대표의 품에 안겼고 손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의 쾌유를 빌었다. 손 전 대표가 “김 의원이 일어나야지”라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눈물 한 방울을 흘

리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지긋이 미소만 지었다고 한다.

한 손에 목욕을 권 김 전 의원은 손 전 대표의 손을 꼭 잡고 “대표님 재기하시어주소”라고 말할 정도로 자정까지는 기력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의 병문안을 마치고 이날 새벽 강진 토담집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했던 김 전 의원의 ‘선종(김 전 의원의 가톨릭 신자) 소식’을 들었다.

김 전 의원 측근은 “선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아팠는지 몰랐다”며 김 전 의원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임종술(영양당중앙교회 목사)·김영미씨 아들 대훈(선박안전기술공단)군 조영익(전남대 대변인)·마미선씨 딸 명지(광주성덕초등학교 교사)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062-946-3333.
- ▲김순자씨 아들 정용건군 김토성(전 광주일보 총무부)·김연례씨 딸 김현영양=16일(토) 오후 4시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엘투체홀.
- ▲박인숙(정읍보호관찰소장)·신수덕씨 장남 병규군(여수 LG화학) 정공섭(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서영숙씨 차녀 고은(광주문정여고)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 종친회

- ▲고씨 광주종친회(회장 고재우 전 광주시장)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남가정 광주 지산유원지 내 062-227-4114 고종석 010-5615-6784.

### 향우회

- ▲문화 류씨 하정공파 광주중친회(회장 류재균) 갑파(청주) 을파조(김제) 선조 제단 참배=17일(일) 오전 7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가족의원앞 출발 010-3051-2415.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진도분원(분원장 이종혁) 정기총회=20일(수) 오전 10시 30분 진도 노인복지관 옆 진도아트센터 2층 010-3728-9355.

### 알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할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모집

-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인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생 50명(강의시간 월수 오후 3시 30분~5시 30분), 2학년 편입생 20명(강의시간 화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유교입문학 및 유교 경전 강의,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음. 062-672-7008.

### 부음

- ▲박상익씨 별세 건우·태운·건웅·세영씨 부친상=발인 15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김삼재씨 별세 영복·영복·영관·영순씨 부친상=발인 15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박봉옥씨 별세 김진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현 교보생명)씨 모친상=발인 16일(토) 그린장례식장 3층 제12호 분향실 062-250-4455.
- ▲전경순씨 별세 유성준(국립전파연구원)·진희(비아중학교)씨 모친상=발인 16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강동민씨 별세 건욱·건우·건오씨 부친상=발인 16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p><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p>			
<p><b>201호 故이명진 님 (남/64세)</b>          子/子婦: 이준호/한인혜, 이인호/문명숙, 이순호          孫: 이재민,이민준          *발 인: 5월 15일 *장 지: 나주 도시</p>	<p><b>301호 故이태문 님 (남/81세)</b>          子/子婦: 이강근, 이광진/김연미          女/婿: 이기자/윤인수, 이영자          未亡人: 김경자          *발 인: 5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p><b>401호 故조순익 님 (여/80세)</b>          子/子婦: 지영일, 지영수, 지중배/양승숙          女/婿: 지소영/김용두, 지은영/김명환          *발 인: 5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p><b>101호 故조정례 님 (여/88세)</b>          子/子婦: 김준석/양춘희, 김민석/박민영          女/婿: 김희숙/이재정          *발 인: 5월 16일 *장 지: 영락공원</p>		<p><b>102호 故양현성 님 (남/75세)</b>          子/子婦: 양동진/이재애, 양동민/고영화          女/婿: 양사라/김경희          未亡人: 주정미          *발 인: 5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p><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p>			